

사교육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김경태 (둘리엄마, 개구리 어린이집 원장, 현장교육지원전문가)

무엇이 사교육인가?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사교육에 대한 논란이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공동육아에서 사교육은 흔히 특기교육이나, 인지교육, 조기교육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편의상 사교육이란 공동육아 터전이 아닌 곳에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교육이란 의미로, 공교육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 공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이란 의미로 정리하고자 한다. 혹자는 공동육아 교육도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이 선택한 교육이므로 사교육이 아니냐고도 한다. 그렇다면 나와 남의 아이를 더 붙여 잘 키우자고 모인 것이 게 공동육아가 아니었느냐고 묻고 싶어진다. 공동육아는 과연 아이들을 더붙여 키우려고 모인 집단인가?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사교육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비롯한다. 첫째는 우리(성인)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인생에서 유아기를 어떠한 시기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과 교육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비롯한다. 교육에 대한 생각은 우리시대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무엇을 우선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이들에 대한 관점은 시대마다 다르고 변화해왔다. 아이와 유아기에 대한 생각은 자연주의 관점에서 아이를 씨앗에 비유하여 unfolding(꽃 봉오리가 펼치다) 개념으로 성숙주의 입장의 아동관이 있고, 로크의 백지설 이후,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교육의 필요성 강조하는 행동주의 아동관이 있다. 최근 연구 결과, 아이들이 많은 능력을 타고 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유능한 어린이’ 이미지와 더불어 ‘공부하는 어린이’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조기교육과 연결되고 있다고 본다. 이처럼 아이들에 대한 생각은 바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 짓고 가시화되곤 한다.

그러나 공동육아의 초기 리더들은 ‘새로운 백지설’을 주장하면서 아이를 중심으로 세상을 백지로 보고 아이가 의미를 부여함에 따라 세상이 의미를 갖게 된다는 아동관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뜻대로 주도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아이들 자신이 육아와 교육의 주체라는 의미로 아이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기존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재해석하고, 새롭게 한다는 것이다. 교육적 행위는 성인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 산물이라고 볼 때 ‘아이의 삶’이라는 관점이 중요하며 공동육아에서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환경을 어떻게 꾸며주는가 하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기술, 효율, 능력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과는 다른 환경과 관계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구성하기를 꿈꾸었고 기존과 다른 환경은 자연나들이, 공동체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을 통해 만들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나들이를 통한 아이들의 탐색, 놀이, 관계 맺기 등을 들 수 있으며 아이들의 삶이 놀이를 통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가르침인가, 배움인가

요즘 우리사회에서는 조기교육의 중요성이나, 다양한 체험의 중요성이나 뭐니 해서 그저 무엇이든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좋은 교육인양, 좋은 부모의 자세인양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교육이 어느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인가. 교육이 가르침과 배움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교육은 그저 가르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아이가 스스로의 선택과 필요성에 의해서 공감과 이해가 될 때 교육이 구성되는 것이다. 공동육아에서 놀이가 곧 배움이자 삶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 근거한다.

-뒹굴 거리는 것은 시간낭비인가?

많이, 빨리 표면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스스로가 체득하고 익힐 수 있는 시간, 스스로를 모색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심심할 수 있는 시간, 뒹굴 거릴 수 있는 시간, 느리게 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려주고 바라보는 어른들이 필요하다. 늦게 피어도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은 제때 피어나는 꽃이다.

-아이들이 원해서 배우는가, 어른들이 원해서 가르치는가?

사교육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규모와 기술도 날이 갈수록 첨단화되어간다. 최첨단 경제의 논리는 필요해서 사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싶게 해서 파는 것이다. 다양하고 현란한 포장을 하고 테크닉을 앞세운 갖가지 사교육은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하다. 만들어진 욕망 어느 곳에 교육에 대한 나의 진정한 바람이, 아이들에 대한 진지한 관점이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보자. 또 나는 내 아이를 얼마나 알고 있나 생각해보자. 내 아이와 함께 지내온 교사들과 이야기해보자.

외국에서 들어온 값비싼 교육들은 과연 그 교육이 애초에 표방한 진지한 교육적 고민을 담아내고 있는가. 교육의 정신보다는 껍질만, 기능만 들여온 것은 아닌가? 또 아무리 진지한 교육적 고민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의 삶의 맥락과 닿아있는 것인가? 아이들의 삶에 근거하지 않고 허공중에 떠있는 교육은 아닌가? 예를 들어 가베를 가르치고 싶으면 장사꾼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150년 전 프뢰벨이 왜 이런 놀이감을 만들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연-신-인간의 조화 통합과 통일성,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배울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는데, 값비싼 가베를 방문교사에게 배우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모들이 교육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야 한다. 불안 때문에 의미도 잘 모른 채 특기교육이나 사교육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교육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 배움이 일어나는 참교육이 뭘지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현장학교도 수강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교육에 대한 고민과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아기에 필요한 교육이란 무엇인가? 인지? 기능? 태도?..

유아기에 강조해야할 교육은 인지교육이 아니라 도덕교육이다. 도덕교육은 다른 말로 해서 남과 어울리는, 더불어 살아야 함을 배우는 교육이다. 유아기는 그른 것과 바른 것, 해도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배우는 시기다. 유아기에는 말로 배우지 않고, 행동을 모방하며 배운다.

친구를 만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한 기호가 생기고, 가족이 무엇인지, 주변세계에 대한 탐색이 일어난다. 이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닐까?

-우리 아이의 재능, 어떻게 살려줄까?

어른 들 말씀에 어려서 신동소리 안들은 사람 없다고 할 정도로 어느 아이든 한 두 가지는 남보다 잘하거나 특출한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고슴도치 부모로서는 아이들의 재능을 제대로 키워서 이다음에 제 밥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려는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러나 진짜 재능을 키워주는 것은 무엇일까 기능이나 테크닉보다 아이 스스로가 원해서, 즐겁게, 오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일이 아닐까? 학문이 되었건, 예술이 되었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열정과 호기심을 갖도록 도와주는 일. 그것은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탐색에서 나온다. 장롱면허와 같은 기능을 익히기보다는 아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면의 탐색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사교육에 대처하는 자세

1) 긴 호흡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봐주자. 아이들은 모방을 통해서 세상을 배운다. 어른들 본보기가 되어 함께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이 어린아이가 젖을 통해 영양분을 흡수하듯이 스며들 것이다. 아이들이 원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미래를 위해 준비로 현재생활을 채운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아이들을 믿고, 기원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2) 내공을 길러주는 교육을 고민해보자.

아이들의 자신감, 문제해결력, 창의력,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과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즐기는 아는 마음, 올바른 인간으로서의 도덕성 이런 것은 정말 옛날이야기인가?

체격은 좋아졌으되 체력은 옛날 어른만큼 못되는 요즘 아이들, 지식은 넘쳐나지만 지혜는 없고 주관도 없이 시류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으로 키워내도 괜찮은 것인가?

3) 아이들에게 놀이와 삶을 알려주자.

요즈음에는 사교육을 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놀이삼아..” “ 주말에 종일 아이와 놀아줄 수가 없어서..” “놀면서 배운다고 하니” 등등 아이들과 놀기 힘들거나 아이들끼리 놀만한 환경이 안 되어 돈을 주고 놀이를 배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다. 놀이를 통해 신체 능력은 물론이려니와 사회성도 터득하고 인지발달도 같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의 자발적인 놀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놀이가 각 가정으로 마을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가정에서 마을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아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돈을 주고 외부로 보내기보다 가족이 같이 놀아주자. 또 가족이 함께 일하고 어깨너머로 가족이 일하는 것을 배우게 하자. 밥하는 것이든, 빨래를 하는 것이든 아이들의 삶이 곧 놀이고 배움이라는 것을 알게 하자.

불안과 소외를 넘어서

기존의 유아교육과는 다른 유아교육을 내세웠던 공동육아 안에서도 사교육에 대한 논란이 분

분하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세태에 따른 부모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증거이자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시키고 싶고, 아이들의 숨은 재능과 소질을 살려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싶은 부모들의 소망이 담긴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같은 고민이 공론의 장으로 나오지 못하고 점차 개별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사교육에 참여하는가 안하는가에 따라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에도 소외가 일어나고 아이와 교사사이에, 부모와 교사 사이에, 부모와 부모사이에 크고 작은 소외와 갈등이 빚어진다. 내 아이와 남의 아이를 더불어 잘 키우자는 공동육아의 기본 정신이 퇴색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부모는 부모대로 교사는 사교육에 대해 일방적으로 반대할 것이라는 생각, 교사는 교사대로 부모들의 개별적인 결정과 선택을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공동육아 안에서 사교육 논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육아 안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논의를 피해가거나 덮어두는 것은 서로를 살리는 교육이 되지 못한다. 공동육아는 기본적으로 아이들 교육을 잘 하겠다고, 공동체적으로 하겠다고 모인 집단이다. 사교육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우리가 어떤 교육을 지향하고자 하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사교육에 대한 논의가 그저 아마들의 합의를 거쳐 어떤 사교육을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터전에 들여와서 할 것이냐 아니냐는 형식의 채택으로 끝나서는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교육에 대한 우리 각자의 고민과 불안은 함께 나눠가져야 한다. 날이 갈수록 거대자본과 국가 권력의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무자비한 교육논리의 횡포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류가 되거나 기회주의자가 되거나 묻혀서 갈 위험이 크다. 교육에 대해 소신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교육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교사들의 관점으로 사교육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점의 하나는 삶과 교육이 단절되는 지점이다. 엄마아빠, 친구와 놀며 삶과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키우며 끊임없이 내면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자연스러운 탐색의 욕구, 배움의 즐거움을 맛보아야 할 시기에 놀며 배운다는 미명하에 부모와 떨어져서, 일상의 삶과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교육이 대부분의 사교육이다. 부모는 교육의 방관자, 무력자가 되고, 교육은 기능이자 기술로 치달아가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배움은 평생의 즐거움이자 자산이어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유아기를 소외시키지 않고 교사와 아마들을 소외시키지 않은 교육이 무엇인지, 경쟁지향적인 우리사회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교육을 삶과 분리하지 말고 진정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행복한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게 할 것인지 같이 논의하고 힘을 모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공동육아를 통해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교육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 <공동육아> Vol.102 (2011년 여름호)

* 이 글은 폐다회의 논의를 거쳐 작성된 글입니다.